



## 2008년도 시무식 개최



▲ 2008년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4월 4일 공단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성규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공단의 위상에 걸맞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해로 삼아 그 동안 공단이 2010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Best KST” 비전을 금년내 달성기로 다짐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철저한 선박검사를 통한 선박의 안전성

확보,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선박안전정책 및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통한 전문기술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임직원간 신뢰 및 노사간 협력 강화라는 5개 올해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두대간종주 대장정 완주!



▲ 백두대간 종주 성공 기념촬영, 강원도 진부령

공단 백두대간종주대는 지난 12월 1일 백두대간 최종구간인 강원도 진부령구간 산행을 마지막으로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 이르는 백두대간 남쪽구간 735.6km(도상거리 640km)를 완주하였다.

공단의 이번 백두대간 완주는 해양수산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기록으로써, 백두대간 종주는 2005년 4월 9일 지리산 구간을 시작으로 백두대간 전 구간을 48개구간으로 나누어 2년 8개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김성규 이사장을 비롯

한 백두대간종주대원 40명이 주축이 되어 연인원 910명이 참가하였다.

공단은 백두대간 종주를 통하여 임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노사간 화합과 단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였고 특히, 힘든 산행에도 불구하고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펼쳤다.



▲ 백두대간 종주를 완주하고 기뻐하는 종주대원들